

【 해외금융 뉴스: 복미 】

미 연준, 추가 경기부양책 공감대 형성

□ 최근 공개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의 9월 회의록에 따르면, 미 연준 위원들이 추가적 경기부양책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.

- 지난 9월 21일 열린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에서 많은 위원들이 미국의 경기회복 둔화세를 타게하기 위한 새로운 금융 완화정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동의함.
- 또한 현재의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 새로운 경기부양정책을 멀지 않은 시점에 실행에 옮겨야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11월 3일에 열릴 다음 회의에서 결정할 수도 있음을 암시함.
- 많은 참석자들은 경기상황이 실업률을 만족스러운 수준으로 감소시키지 못하거나 FOMC가 제시하는 수준 이하의 인플레이션이 지속될 경우에 새로운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함.
- 스탠다드 차타드(Standard Chartered)의 이코노미스트 데이빗 시멘스(David Semmens)는 연준 회의록이 미국 경제전망에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는 한, 추가적인 부양책을 시행할 것이며 그 시기도 멀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고 해석함.

□ 연준 위원들은 인플레이션 기대를 확대할 수 있는 정책을 선호하고 있으나 일부 위원들이 추가 경기부양책에 대해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 등 주변국의 우려도 존재함.

- 대규모 장기국채 매입을 주요 수단으로 금융 완화 전략들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위원들은 경기부양을 위해 인플레이션 기대를 확대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하였으며, 이를 위해 보다 분명한 인플레이션 및 성장률 목표를 채택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함.
- 그러나 여전히 추가 경기부양책에 반대하는 의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, 그들은 경기전망이 더욱 악화되거나 디플레이션 가능성이 상당히 증가할 경우에만 추가적 부양책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함.
- 또한 최근 환율문제 등으로 중국과의 대립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적인 중앙은행의 자산매입이 신흥시장으로의 불안정한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킨다는 중국의 비난을 확대할 가능성도 상존함.

(Financial Times, 10/12)